

영아 정서성기질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어머니 특성의 상호작용효과*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Emotionality Temperament and Parenting Stress in Terms of Interaction Effects of Maternal Factors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강사 민동옥
교수 박혜원

Departmen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Lecturer : Dongok Min

Professor : Hyewon Park

◀ 목 차 ▶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결론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 References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This investigation is done by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infants' temperament and maternal factors. A total of 1,120 infants and their mothers from a national sample were selected as subjects for carrying this investigation. The EAS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lity) 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 Parental Ratings was used to measure the infants' emotionality temperament, and PSI-SF(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and a survey on socio-demographic variables were used for the maternal factors. Two-way ANOVA revealed that the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infants'emotionality temperament. Most importantly,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infants' emotionality temperament and maternal factors(education level, employment status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goodness of fit of the temperament and parenting models.

주제어(Key Words) : 영아(infants), 정서성 기질(emotionality temperament),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어머니 특성(maternal factors),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Hyewon Park, Departmen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93, Daehak-ro, Nam-gu, Ulsan, 680-749, Korea
Tel: +82-52-259-2367 Fax: +82-52-259-1699 E-mail: hyewonc@ulsan.ac.kr

* 본 논문은 2011년 대한가정학회 제64차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 본 논문은 2009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육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 그 자체보다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양육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인지적 측면이 된다(Abidin, 1992).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아동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할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짜증을 더 많이 내며, 결국 아동의 공격적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atterson, 1983). Crnic과 Greenberg(1990)도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지는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아동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건강한 가족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데, Abidin(1992)은 이를 자녀 요인, 어머니와 관련된 요인, 맥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아동 요인으로는 기질 특성으로 적응성, 수용성, 기분, 요구성, 과잉 활동을 제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유능성, 애착, 우울, 억압, 건강을, 맥락적 요인으로는 배우자관계, 사회적 고립을 제안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관련된 요인에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취업여부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도 있다(Jin, 1993; Lee, Yi, Yoo, & Cho, 1991; Park, 1997)고 밝혀 왔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자녀 특성과 어머니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자녀 특성으로는 기질을 선정하였으며, 어머니 특성으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 그리고 심리적인 특성인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다룬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변인인 기질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아동의 개별 특성 중 기질은 부모로부터 차별화된 반응을 이끈다고 제안되어 왔다. Belsky(1984)는 양육 과정모델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맥락적 특성 외에도 아동의 특성을 제시하며, 특히 주요한 아동 특성으로 기질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Abidin(1992)도 아동의 기질은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양육행동으로 전달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쉽게 기분이 나빠지는 극단적인

부정적 정서성을 지니고 있거나, 화를 잘 내거나 달래지지 않는 아이들은 지나친 에너지로 양육자를 힘들고 지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후 문제행동 및 부정적 발달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왔다(Buss & Plomin, 1984). 또한 기질 중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영아들일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n, 1996; Jo, 1999; Oestberg & Hagekull, 2000). 종합해보면 아동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특성에서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교육수준과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역할 갈등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적게 느끼며(Lee et al., 1991), 스트레스 양과 심리적 손상이 적으며 어머니 역할수행에 따른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및 가사역할을 수행할 때 자원을 스스로 활용하는 능력이 풍부하며 스트레스의 원인을 잘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Oh(2001)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되고 있어 교육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본 연구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Park(1993)의 연구에서는 취업모는 직장 생활로 인해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여겨 걱정과 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Heo와 Yun(2002)의 연구에서는 취업모보다 비취업모가 부모 역할에 한계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의 비일관된 결과로 인해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양육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든 실정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와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관계를 살펴보면,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정적·통제적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lsky, 1984; Kim, 2000). 마찬가지로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지지원이 되며 부부간의 부조화는 부적절한 양육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결혼만족도가 낮으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보았다(Frey, Greenberg, & Fewell, 1989). Jeon과 Park(1996)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지원은 스트레스 감소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와의 결혼 만족도 역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특성 뿐 아니라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일시적 혹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근심과 부담감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지속적이며 여러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다차원적인 것이라고 제안되고 있다(Kwak & Kim, 2004). 이러한 제안과 유사하게 Luster와 Okagaki(1993)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인들을 개별적인 일방향적인 관계로 살펴보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을 바탕으로 볼 때, 경험된 양육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원으로부터 제공된 스트레스 뿐 아니라 아동 및 어머니 특성으로 인해 감소하거나 증가된 스트레스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의 관련변인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의 특성 및 어머니 특성 변인을 모두 고려하여 이들 간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적인 효과를 탐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녀 특성과 어머니 특성 간에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어머니 특성으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와, 심리적 특성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았으며, 자녀 특성중에서는 정서성기질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기질은 분노, 화, 좌절 등의 부정적 정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어(Han & Park, 1996), 개인 특성을 결정짓는 강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수집된 아동패널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부모의 양육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이 어떤 것인지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문제 1〉 영아 정서성기질과 어머니 특성(교육수준, 취업상태, 결혼만족도)에 따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영아 정서성기질과 어머니 특성(교육수준, 취업상태, 결혼만족도) 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연구(PSKC)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08년 4월부터 7월 중 전국(서울/경인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에 있는 1,120명 영아 가구로, 남아가 562(50.2%)명이고 여아가 558(49.8%)명으로 남아가 약간 더 많았다. 영아의 평균 연령은 5.36개월(연령 범위 4개월~10개월)이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1.36세(연령 범위 19세~46세)이고,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3.65세(연령 범위 19세~51세)였다.

2. 연구도구

1) 영아기질

영아의 기질은 Buss와 Plomin(1984)의 EAS 기질척도:부모용(The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lity 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 Parental Ratings)척도를 Shin 외(2007)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EAS는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는 정서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총 5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5점~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가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기분을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는 .69였다.

2)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Kim과 Kang(1997)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를 수정·보완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만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8점~40점이며,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는 .85였다.

3) 어머니 결혼만족도

어머니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umm, Nicols, Schectman과 Grigsby(1983)가 개발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Chung(2004)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RKMSS(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RKMSS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어머니가 평정하였다. 총 4개 문항으로 '매우 불만족(1점)' 부터 '매우 만족(5점)' 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4점~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는 .91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육아정책개발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연구의

2009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패널연구에서는 1,120명의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EAS 기질척도를 어머니에게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어머니에게 교육수준, 취업유무, 결혼만족도 질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별 질문지의 내적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양육스트레스에 있어 관련변수들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을 중앙값을 기준으로 두 집단을 나눈 후 t 값을 산출하여 집단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영아 정서성기질과 어머니 특성(교육수준, 취업상태, 결혼만족도)의 상호작용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각 변인을 상하집단에 따라 dummy 변수처리한 후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영아 정서성기질과 어머니 특성(교육수준, 취업상태, 결혼만족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영아 정서성기질과 어머니 특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영아 정서성기질과 어머니 교육수준, 취업상태, 결혼만족도 모두에서 집단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영아의 정서성기질이 높은 집단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t = -9.21, p < .001$),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t = 1.96, p < .05$), 비취업인 집단($t = -2.35, p < .05$), 결혼만족도가 낮은 집단

Table 1. Parenting stress by infants' emotionality temperament and maternal factors

Variable	Classification	N	M	SD	t
Infants' emotionality temperament	Low	443	25.43	6.25	-9.21***
	High	677	28.96	6.29	
Education level	Low	354	28.11	6.57	1.96*
	High	759	27.29	6.46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303	26.88	6.25	-2.35*
	Unemployment	817	27.63	6.16	
Marital satisfaction	Low	510	29.86	6.78	11.34***
	High	608	25.66	5.87	

* $p < .05$. *** $p < .001$.

($t = 11.34, p < .001$)에서 각각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영아 정서성기질과 어머니 특성의 상호작용효과

영아 정서성기질과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Table 2), 영아 정서성기질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 = 88.56, p < .001$), 어머니 교육수준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영아 정서성기질과 어머니 교육수준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4.70, p < .05$).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의 부정적 정서 기질이 높은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으면 양육스트레스의 점수가 더 상승하였다.

Table 2.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infants' emotionality temperament and mothers' education level on parenting stress

Variable	SS	df	MS	F
Infants' emotionality temperament	3459.29	1	674618.8	88.56***
Education level	46.22	1	3459.29	1.18
Infants' emotionality temperament* Education level	183.82	1	46.22	4.70*
Error	43319.09	1109	183.82	
Total	891793.0	1113	39.06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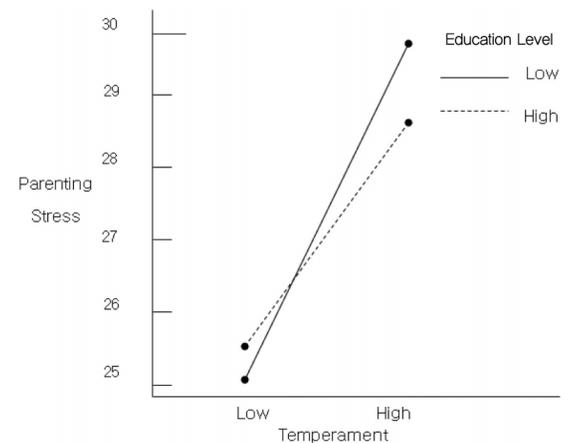


Figure 1.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infants' emotionality temperament and mothers' education level on parenting stress.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영아 정서성기질과 어머니 취업상태의 효과를 변량분석한 결과(Table 3), 영아 정서성기질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주효과만 유의하였으며($F = 50.96, p < .001$), 어머니 취업상태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아 정서성기질과 어머니 취업상태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5.75, p < .05$). Figur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의 부정적 정서 기질이 높은 경우 어머니의 비취업은 양육스트레스의 상승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infants' emotionality temperament and mothers' employment status on parenting stress

Variable	SS	df	MS	F
Infants' emotionality temperament	1995.49	1	1995.49	50.96***
Employment status	40.92	1	40.92	1.05
Infants' emotionality temperament* Employment status	224.97	1	224.97	5.75*
Error	43700.86	1116	39.16	
Total	898534.0	1120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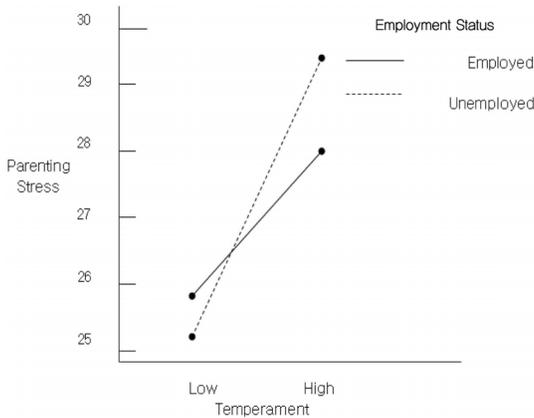


Figure 2.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infants' emotionality temperament and mothers' employment status on parenting stress.

영아 정서성기질($F = 77.31, p < .001$)과 어머니 결혼만족도($F = 102.50, p < .001$)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어 두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Table 4). 그리고 영아 정서성기질과 어머니 결혼만족도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는데($F = 3.80, p < .05$), Figure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의 부정적 정서 기질이 높은 경우 어머니의 낮은 결혼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의 상승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infants' emotionality temperament and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on parenting stress

Variable	SS	df	MS	F
Infants' emotionality temperament	2752.43	1	2752.43	77.31***
Marital satisfaction	3649.60	1	3649.60	102.50***
Infants' emotionality temperament* Marital satisfaction	135.34	1	135.34	3.80*
Error	39663.57	1114	35.60	
Total	897282.0	1118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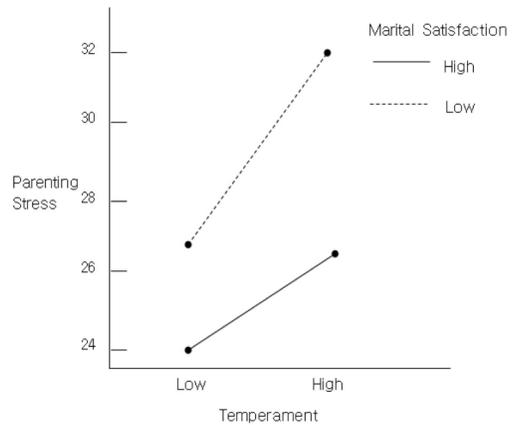


Figure 3.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infants' emotionality temperament and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on parenting stress.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영아 특성인 기질과 어머니 특성인 교육수준, 취업상태, 그리고 결혼만족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양육스트레스에 있어서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특성인 교육수준, 취업유무, 결혼만족도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지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즉 부정적 정서와 같은 영아의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가 어머니가 지닌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심리적 특성에 의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정서성기질과 어머니 특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기질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자녀를 둔 어머니에 비해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였다는 선행연구들(Han & Park,

1996; Nam, 2003)과 맥을 같이 하며, 적응적이지 못한 기질을 보이는 유아의 어머니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인다는 연구(Lee & Min, 2007)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아동의 강한 부정적 정서 기질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를 보면,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가 높은 어머니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인 어머니들이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결과(Kim & Yoon, 2000; Park, 1997)와는 상반된 결과이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선행연구(Jin, 1993; Park, 1997; Yoo, 2002)결과를 지지 한다. 이렇듯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의 비일관된 결과로 인해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따라서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 언급하였듯이 교육수준과 또다른 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어머니 특성 중 취업상태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가 직장생활로 인해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불편함과 근심이 높다는 연구(Park, 1993)와는 상반된다. 그러나 비취업모가 취업한 어머니들보다도 부모역할에 대한 한계를 높게 인식(Heo & Yun, 2002)하며, 자녀양육과 가사일을 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다(Kim, 2004; Park, 1994)는 연구들과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취업률이 50% 이상을 넘어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많아지는 현실은 비취업모가 소수로서의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만족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도가 낮은 어머니가 높은 어머니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가 낮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보다 높다는 연구결과(Choi, 2006; Kim, 2002)와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연구결과들(Jeon & Park, 1996; Kim, 2003; Park, 2004)과 일맥상통한다.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정적·통제적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감소(Kim, 2000; Belsky, 1984)할 수 있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간의 역할 공유와 남편의 양육지원 등으로 인한 높은 결혼만족은 양육스트레스를 절감시켜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영아 정서성기질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취업상태, 결혼만족도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기질이 높을 때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나 특히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 때 양육스트레스의 상승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라 영아 정서성기질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영아 정서성기질과 어머니 교육수준, 양육스트레스를 함께 고려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일반적으로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하거나 우는 특성을 나타내는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자녀일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Kim, 2000; Kim, 2001; Kim & Cho, 2000; Stoneman, Brody, & Burke, 1989; Rem & Hyun, 2002)고 보고되어 왔다. 그런데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한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의 부족, 취약한 정보와 양육기술 등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어머니로 하여금 더 높은 양육스트레스 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기질이 높을 때 비취업모의 경우 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일은 비교적 비구조적이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그 역할에서 오는 보상이 적다고 느끼며 가사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감과 더불어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비취업모에게 욕구불만과 좌절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된다(Kim, 2000). 또한 비취업모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개인시간이 부족하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피로와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 이는 기존 어머니의 생활 패턴 및 자기 만족감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는 긴장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비취업모의 특성은 까다로운 정서 기질을 가진 아동과의 상호작용 효과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부정적 정서 기질이 높을 때 낮은 결혼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를 더욱 상승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지지기반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낀다는 연구결과(Crnic, Greenberg, Regezin, Robinson, & Basham, 1983; Park, 1994)는 부부관계의 질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의 지지에서 낮은 만족도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Jeon & Park, 1996), 이와 더불어 반응 강도가 강하고 짜증을 많이 내는 정서성이 높은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 양육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표집된 대규모자료를 사용하여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한국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부모 역할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아동과 부모 특성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이

해를 통해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아동의 특성(예, 성, 출생순위)과 맥락 특성(예, 사회적지지 등)에 따른 양육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요즘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혼과 재혼, 부모의 부재로 인한 불안정한 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hoi, S-A. (2006). Factor analysis on mother's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Korea.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with Korean couple.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B. (1983). Effect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 term infant.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Frey, K. S., Greenberg, M. T., & Fewell, R. R. (1989). Stress and coping among parent of handicapped children: A multidimensional approach.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4*, 240-249.
- Han, S-Y. (1996).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the poorness-of-fit of tempera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Han, S-Y., & Park, S-Y. (1996).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the goodness/poorness-of-fit with temperamen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17*(1), 245-258.
- Heo, Y-R., & Yun, H-J. (2002). A study on the child rearing stress of mothers having children ages 4 to 6.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4), 145-157.
- Jeon, C-H., & Park, S-Y. (1996).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5), 115-129.
- Jin, M-J. (1993). Burden of women in the middle age on role performance as a mother and psychological welf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Jo, Y-S. (1999). Toddlers' temperament recognized by mothers and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 Kim, H-J. (2004).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ess of child rearing between a working mother in a dual-income family and a full-time housekeep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S. (2001).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socioemotional investment in the child of mothers with infa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Y. (2003). A study on parent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il University, Wanju, Korea.
- Kim, K-H. (2000). An ecological approach to analyzing variables i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H., & Cho, B-H. (2000). An ecological approach to analysis of variables i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1*(4), 35-50.
- Kim, K-H., & Kang, H-K. (1997).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 Economics Association*, 35(5), 141-150.
- Kim, M-K. (2002). A study on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of children of 4-6 years of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R-J., & Yoon, J-H. (2000). An ecological study on working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12), 47-58.
- Kwak, K-J., & Kim, S-J. (2004). The differences in the touch patterns to mother's internal state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7(1), 1-18.
- Lee, S-M., & Min, H-Y.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other's child-rearing stress.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6(2), 219-225.
- Lee, Y-S., Yi, S-H., Yoo, G-H., & Cho, J-S. (1991). Work/family conflict, physical/psychological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of employed homemakers in dual-earner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9(2), 209-223.
- Luster, T., & Okagaki, L. (1993). Multiple influence on parenting: Ecological and life-course perspective.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101-120). Hillsdale: Lawrence Erlbaum.
- Nam, H-S. (2003). A difference of parenting stress dependent on children's temperament perceived by their mothers. *Journal of Child Education*, 12(2), 121-135.
- Oestberg, M., & Hagekull, B. (2000).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parenting stres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4), 615-625.
- Oh, E-K. (2001). A research how parenting behavior by the working mothers, support of spouse and the degree of professional satisfaction affect the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 Park, H-M. (1994). Study on parental stress based on the parentation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O. (1993). Separation anxiety of mothers having children under 3 years ol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O. (1997).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mothers having children in infanc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6(2), 37-45.
- Park, S-S. (2004).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 Patterson, G. R. (1983). Stress: A change agent for family process, In N. Garnezy & M. 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pp. 235-264). New York: McGraw-Hill.
- Rem, R-X., & Hyun, O-K. (2002).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YanBian Korean-Chinese mother's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child-rearing practic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11), 23-37.
- Shin, N-R., Lee, J-W., Kim, M-J., Kim, Y-W., CHO, B-H., Hong, S-H., et al. (2007).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Seoul: Hanhakmunhwa.
- Schumm, W., Nicols, C., Schectman, K., & Grigsby, C. (1983). Characteristics of reps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53, 567-572.
- Stoneman, Z., Brody, G. H., & Burke, M. (1989). Marital quality, depression, and inconsistent parenting: Relationship with observed mother-child confli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105-117.
- Yoo, H-J. (2002). The rear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according to the types of disabilities of children and the attachment styles of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접 수 일 : 2011년 9월 15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 2012년 2월 3일